



삼국유사인문학여행(遊行)

원광의 '세속오계'와 '호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꽃 해치지 않고 꽃가루 따는 벌처럼...

1. 불교의 오계
 불자의 정체성은 '세 보배의 귀의' [三歸依]와 '다섯 계' [五戒]의 수지로부터 확립된다. 삼보는 붓다라는 보배, 그의 가르침이라는 보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가라는 보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삼보의 귀의와 오계의 수지는 불자의 기반을 이룬다. 붓다의 열반 이후 불교는 불상 등으로 조형화되었다. 법보는 붓다의 말씀과 그 제자들의 주해서로 편찬되었다. 승보는 붓다의 말씀을 따르는 평등과 화합의 공동체인 상가의 수행자들이다. 이들 수행자들의 개인적 규범이 '계(戒)이고, 공동적 규범이 '율(律)이다. 불교의 10계와 48경계 및 비구의 250계와 비구니의 348계(500계) 등의 계는 모두 오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계는 '지계(持戒)와 '법계(犯戒)로 갈라진다. 계는 '무엇을 하지 말라' [禁戒]는 것에 겨냥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무엇을 하라' [勸戒]는 것에 겨냥되어 있다.

불교의 계율은 수행자들의 수행의 정도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인 상가에서 살아가는 수행자들은 공동체의 규범 설정에 대단히 중요시했다. 상가는 이러한 규범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 백제의 경이 가져온 <사분율> <심승율> <오분율> <해탈율> <마하승기율> 등 오분율은 불교공동체 화합을 강조하는 상가공동체의 주요한 규범들이다. 여기에는 불교공동체 일상과 문화가 고스란히 집성되어 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주어진 일과와 물품 그리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들이 모두 평등했다. 수행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성과 평등성은 승가 유지의 기본 원리였고 화합 상가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었다. 비불기의 목숨 무게와 수행자의 목숨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본생경> 예화는 이러한 생명의 평등성을 잘

외교문서(儀表啓書) 작성의 소임을 다하면서 이후 신라 최초의 문관직(文翰官職)인 상문사(詳文師) 설치의 산파역을 해내었다. 원광이 황룡사에 머물 때 진평왕은 그로 하여금 고구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수나라에게 군사를 청하는 글' [乞師表]을 짓게 했다. 표문에서 원광은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 남을 멸하는 것은 사문의 행이 아니오나, 빈도가 대왕의 토지에서 대왕의 수초를 먹고 살면서 어찌 명하심을 따르지 않으리까?"라고 하였다. 원광의 이 '겉사표'는 호국과 호법의 관한 깊은 시사를 담고 있다.

2. 호국과 호법
 불교사상사에서 이뤄진 '호국(護國) 개념은 늘 '호법(護法)과 등치의 관계를 이뤄왔다. '호국'은 '불교가 위기로부터 국가(國)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적 도량과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보다 종교의 우위를 인정해온 인도에서 '국가'란 국왕이 아니라 '국토'였고 그것이 '불교의 국가관'이 됐다. 때문에 불경에서 말하는 '호국'은 '국왕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국왕의 불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붓다가 열반하면 시 국왕에게 특별한 당부한 내용이기도 하다. <인왕경>과 <법망경>은 중국에서 성립된 위경들로 알려져 있지만 불교의 국가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전들이다.

<인왕경>에서는 16나라의 왕들이 국토를 수호할 인연에 대해 붓다에게 묻는다. 붓다는 호국의 절대적 요건은 '호법(護法)에 있으며, 반대로 불법을 파괴시키는 것은 '파국(破國)의 인연이 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수·당 이래의 중국과 신라·고려 이래의 한국은 <인왕경>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백고좌(百高座) 법회를 열어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다. 백고좌법회는 100명의 고승을 초빙하여 공양을 대접하고 100개의 등불을 밝히며, 온갖 향을 피우고 불상과 보살상과 나한상을 각기 백 구씩 시설하며, 이 자리에 참석 한 국왕이 매일 <인왕경>을 직접 읽는 성대한 불교 의식이었다. 그런데 <인왕경>의 주요 메시지는 '호국'이 아니라 '호법'에 겨냥되어 있었다.

이것은 불교가 '국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護國]가 아니라 국왕이 '불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護法]에 맞추어진 것이었다. 이같은 호국론에 입각해 황제(왕)는 곧 '당금(當今)의 여래(如來)이니 승려들이 마땅히 황제(왕)에게 절을 해야한다고 강변했다. 이는 황제(왕)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즉불(皇即佛) 혹은 왕즉불(王即佛) 및 왕즉보살(王即菩薩) 또는 왕즉보살(王即菩薩)의 관념은 중국 남북조의 황제들과 당대의 측천무후, 신라 진평왕 전후기와 후고구려(대봉)의 궁에 등이 절대 왕정을 꿈꾸며 널리 활용하였다. 이 세계를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뉘 보는 불교에서 세간의 통치자인 황제(왕)와 출세간의 통치자인 붓다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황제(왕)는 세간과 출세간을 동일시했고 자신과 붓



임진왜란 민족화. 더 큰 평화를 위한 전쟁은 가능한 것인가? 승병에 대한 해석문제는 현재도 화두다.

호국은 국민포함한 사회에 대한 충정 호법은 불교 초월한 보편가치 보호

를 동일시했다. 내면의 각성을 추구하는 출가자와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다수 재가자의 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또 불교와 사회, 교단과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 설명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 설정이 바람직할까? 여기서 국왕을 민(民)을 포 함하는 사회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다면 호국이 황제(왕) 한 사람을 위한 충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법이 불법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만 강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왕을 동일시하던 차별화하는 간에 국가와 불교의 관계는 분리될 수도 없고 동일시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세속오계의 의미

가서잡에 머물고 있던 원광의 처소로 귀산(貴山)과 추항(帶項)이란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

에게 "죽을 때까지[終身] 계로 삼을만한 한 말씀[一言]을 요청했다. 원광은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어 '열 가지 무거운 계' [十重戒]가 있다. 하지만 너희는 남의 신하와 아들이 되어 지키기 어려울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광은 사군자와 교류하는 길과 훌륭한 국민이 되는 길에 대해 세속인들이 지켜야 할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오계(世俗五戒)를 제시해 주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의 살생유택 조목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는 다시 '택시(擇時)와 '택물(擇物)의 활로를 통해 생명 존중의 길을 열어주었다.

원광은 "여섯 날과 불철·여름철에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시기를 가림' [擇時]이다. 가족을 죽이지 않음은 곧 말·소·닭·개를 이리며, 작은 생물을 죽이지 않음은 곧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이리니 이는 '생물을 가림' [擇物]이다. 이는 또한 쓸모 있는 것만 하고, 많이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속의 좋은 계목이다"고 역설했다. 원광은 또 "(매월 8·14·15·23·29·30일의) 6일(齋日)은 사천왕이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자 악귀가 사람을 엿보는 날이므로 사람

다 몸을 깨끗이 하고 계를 지켜야 하는 날이다. 때문에 이러한 날에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산 것들이 생식을 통해 번성하는 봄철이나 여름철에 살생을 피하라는 것은 오히려 생물들이 지니고 있는 번식의지를 잘라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1년 365일 가운데서 봄철과 여름철을 피하고(6*30=180여 일) 다시 육제일을 피하면(6*6=36) 실제로 생명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기간은 150여 일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1년 가운데서 생명체의 생명을 끊는 기간보다 살려주는 기간이 더 길게 된다. 해서 이 조목은 '생명체를 살려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더욱 더 강조되는 것이다. 이른바 '시일을 가린다' [擇時]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광은 인간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이동 수단인 말, 노동수단인 소, 시간을 알려주는 닭, 집을 지켜주는 개 등의 가족들은 나름대로 제 몫이 있으므로 '생물을 가려' [擇物] 목숨을 끊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점 고기가 되기에 부족할 [不足一鰯] 미세한 생물[細物]을 가려서 [擇物]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이 또한 쓸모 있는 것만 하되 많이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법구경>에서 "꽃의 아름다움과 색깔, 향기를 전혀 해치지 않고 꽃가루만을 따가는 벌"처럼 지혜롭다. 물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목숨 가진 것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광과 같

불살생계의 새 해석 원광에서 찾아 현실적인 덕목이 필요할 때

이 발상을 바꾸면 생명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육제일이나 불철과 여름철을 피하면 '언제' 생명을 죽일 겨를이 있겠는가, 또 집안에 도움을 주는 가족이나 작은 생물을 죽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죽일 수 있겠는가? 원광은 '시기'와 '생물'을 "가려서 살려주기[擇殺] 위해"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생물을 살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해온 원광의 해안은 연기와 자비의 관점 위에서 상생의 생태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그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체계화한 성실학과 여래장사상을 조직화한 한 심론학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 대승불학을 정초하였다. 아울러 원광은 호국과 호법 사이의 활로를 열어 불교 국가관을 정립하고 현실적 삶의 구체적인 덕목으로서 세속오계를 창안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교의 계율은 수행 척도지만 호국 앞에 다른 해석 가능

보여주고 있다. 불살생계의 진정한 의미는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보다는 '죽음과 공포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들을 살려 주라'는 것에 있다. 불투도계의 참다운 의미는 '죽지 않는 것을 흠치지 말라'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것에 있다. 불사음계의 진정한 의미는 배우자 외의 이성과 음행을 하지 말고 '맑고 깨끗한 몸가짐을 지니라'는 것에 있다. 불망야계의 참다운 의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에 있다. 불음주계의 진정한 의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에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불사들도 하여금 '금계' 보다는 '권계'에 초점을 둬으로써 적극적·능동적인 선행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원광(562?-660?)은 신라로 돌아와 정도의 가서잡사에 머물며 정찰법회를 주도했다. 또 그는 경주 황룡사에 주석하면서 외교문서 등을 전담했다. 원광은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과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 해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교명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7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g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관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습기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 체중은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박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면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쳐주세요.

법화경독송 천일기도

(2012. 3. 25 ~ 2014. 12. 19)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의하오며 고려사와 인연 있는 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평안이 깃들고,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발원하며, 고려사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 부처님 최고의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법화경)을 천일동안 일천번 독송하는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00 ~ 03:00 법화경 전문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제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참금 : 10만원
 ■ 접 수 : 전화접수 가능
 ■ 문 의 : 032) 932-3525 / 070-4147-6525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